

자기성장 관점에서 본 『겨울왕국』

정기철(한남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겨울왕국』과 자기성장 |
| 2. 자기실현과 자기성장 | 4. 결론 |

1. 서론

『겨울왕국』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겨울왕국』이 달성한 천만 관객 돌파는 외국영화로는 두 번째이고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첫 번째로 관객 천만을 돌파한 외국영화인 『아바타』의 경우 작품성 외에도 ‘최초의 3D 영화’라는 점이 흥행의 큰 요소로 작용했음을 감안한다면, 『겨울왕국』의 천만 관객 돌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관객 500만 명을 최고치¹⁾로 여겨왔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최고치 두 배를 훌쩍 넘기는 관객을 동원했다는 것은 무심히 지나칠 일이 아니다.

영화평론가들은 『겨울왕국』의 성공 요인을,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의 만남’·‘캐릭터’·‘자매 간(가족 간)의 사랑’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이제까지 상영된 애니메이션 중 가장 관객을 많이 모았던 애니메이션은 2011년 개봉했던 『쿵푸팬더2』로 500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이유만으로는 천만 명 이상의 관객이 『겨울왕국』을 관람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린이 관객뿐 아니라 어른 관객들의 관심을 사야 하는데, 『겨울왕국』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 어린이 영화’의 등식을 깨고 40·50대 남녀 관객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40·50대 관객들이 『겨울왕국』에 매료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겨울왕국』이 자기성장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겨울왕국』을 자기성장(Self - growth)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는, 『겨울왕국』이 짧은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린 엘사에서부터 성인 엘사까지 엘사가 성장하는 과정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성장 영화라는 것이다. 성장을 다룬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상당수이지만 『겨울왕국』처럼 ‘어린 엘사 → 소녀 엘사 → 성인 엘사’를 쫓아가며 성장의 전 과정을 보여준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찾아보기 어렵다.

두 번째 이유는, 『겨울왕국』의 처음부터 끝까지 곳곳에 등장하는 ‘HEAD’와 ‘HEART’ 때문이다. ‘HEAD’와 ‘HEART’를 직역하면 ‘머리’와 ‘심장’이 되지만 문학적·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지’와 ‘감정’으로 읽을 수 있다.²⁾ 인지와 감정은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³⁾ 인격적인 성장 과정은 인지와 감정의 갈등의 과정이며, 인격적 성장이란 인지와 감정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조금 더 확장 적용하면, 순간순간 엘사를 ‘인지’로 만나를 ‘감정’으로 읽을 수 있다. 이성적이고 어른스러운 엘사를 인지로, 즉흥적이고 아기 같은 행동과 발상을 하는 안나를 감정으로 읽는 것은 그리 큰 억지는 아닐 것이다.

『겨울왕국』의 또 다른 핵심어는 ‘진정한 사랑(True love)’이다.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엘사와 달리, 안나는 멋진 왕자 한스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한스에게 배신당하여 죽음으로 내몰린다. 오히려 결점 투성이인 크리스토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 『겨울왕국』은 안나와 크리스토프의 결혼까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인간

2) ‘HEAD’와 관련 있는 단어에는 인지·지식·지성 등이 있고, ‘HEART’와 관련 있는 단어에는 정서·감정·느낌 또는 경우에 따라 가슴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EAD’를 ‘인지’로 ‘HEART’를 ‘감정’으로 바꾸어 읽을 것이다.

3) 심리학에서 인간의 유형은 머리형 인간·가슴형 인간·장형 인간으로 분류하는 것으로만 보아도 인지와 감정이 인간을 구성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은 모두 결점 투성이라는 것과 진정한 사랑으로 그 결점들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40·50대 남녀 관객들을 『겨울왕국』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40·50대 남녀 관객들은 엘사와 안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고 반추하기도 하며, 한스와 크리스토프를 통해 사람은 겉모양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인간은 결점 투성이라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진정한 사랑만이 인간을 완벽하게 해 준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으며 『겨울왕국』에 몰입하는 것이다.

2. 자기실현과 자기성장

2.1. 자기실현과 자기성찰

인간은 모두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행복한 삶이란 ‘굶주리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받고 존중 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삶’일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며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낄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자기실현은 인간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자기실현은 행복 그 자체이거나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이자 자질이다.

행복을 위해 ‘나’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 즉 자기실현이 중요하다고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합리성으로 인식하고 그 합리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모든 인간은 잠재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태(可能態, Potentiality)이며, 인간은 잠재된 가능성을 수행

하고 현실화하는 현실태(現實態, Enegeia)가 되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최근의 심리학자들의 견해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융(C.G.Jung)은 인간은 ‘자기실현 의지’를 갖는다⁴⁾고 하였으며, 매슬로(Abraham H. Maslow)는 모든 인간은 ‘자기실현 욕구’를 갖는다⁵⁾고 하였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는데, 1단계 : 생리적 욕구 · 2단계 : 안전에 대한 욕구 · 3단계 :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 4단계 : 자기존중의 욕구 · 5단계 : 자기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⁶⁾

자기실현은 선형적이거나 결과물이 아니다. 융(C.G.Jung)은 자기실현이란 완전성(Vollkommenhei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성(Vollständigkeit)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매슬로(Abraham H. Maslow) 역시 자기실현은 도착점이 있는 완성형의 개념이 아니라 유연하고 비선형적인 속성을 띤다고 하였다. 매슬로는 더 나아가 자기실현을 이룬 사람의 특징으로 ‘융합하는 경향성⁷⁾’을 들었는데, 이 경향성이란 이분법적 사고들이 사라지고 더 수준 높고 포괄적인 수용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성찰(自己省察, Self-reflection)이 필요하다. 성찰은 기본적으로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와 같은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는 조망(眺望)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망을 ‘주관의 객관화’, 또는 ‘주체의 객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조망은 사유의 주체인 ‘나’가 또 다른 ‘나’를 바라보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망심(妄心)을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토대로 좀 더 나은 ‘나’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4) 인간은 자기실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융의 견해는 이부영의 『자기와 자기실현』(한길사, 2002)에서 살펴 볼 수 있다.

5) 모든 인간은 자기실현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매슬로의 논의는 매슬로 저, 오현경 역, 『동기와 성격』(21세기북스, 2009)를 참고할 수 있다.

6) 매슬로는 말년에 자기실현의 욕구 위에 자기초월의 욕구가 있다고 자신의 이론을 정정하였다.(이에 대한 논의는 위의 책, 참고) 하지만 자기초월의 욕구는 평범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초월 욕구에 도달하거나 이 단계를 완성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7) 아브라함 H. 매슬로, 정태연·노현정 역, 『존재의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5. 388면.

따라서 진정한 자기성찰이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있는 타인과 세계, 주변 환경 등을 ‘넌지시 바라보는 [조망]’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화·도시화·정보화 [인터넷]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그렇다. 현대인들은 산업체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의 시간이 아닌 조직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기회보다는 타인과 관계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기회가 더 많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세계의 관계가 더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 거기에 인터넷 속에서 나 아닌 또 다른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성찰 = 자기 안의 나를 들여다보는 것’의 차원을 벗어나 그러한 ‘나’, ‘나의 삶’을 멀리 떨어뜨려놓고 그 모두를 넌지시 바라보는 조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자기성찰이 자기실현으로 이어지거나 자기실현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2.2. 자기성장과 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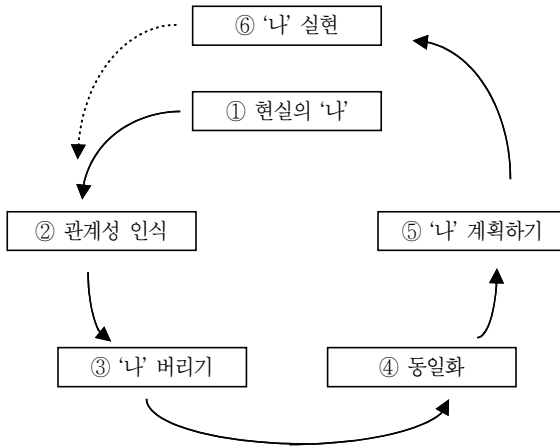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성장이라 하면 세포 분열의 증가로 일어나는 키나 몸무게 치수 증가를 의미하거나 경제·사회·과학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지표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인 양과 수치의 증가만이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감정·정서·성격·기질·개성·인성·인격 등에도 성장이 적용되며 안정·조화·세련·통합 등의 주관적인 질적 개념으로도 이해된다. 더불어 타인과의 교류가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겸양·양보·관용·공감·용서 등과 같은 상호작용적 덕목들이 더 중요한 성장의 요인들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성장’보다는 ‘자기성장’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⁸⁾ 굳이 ‘자기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위에 말한 ‘주관적인 질적 개념’의 요소들은 타인이나 환경의 요인보다는 ‘자기’의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자기개방을 통해 자기수용과 자기이해에 이르러 결국에는 타인과 환경까지도 나의 세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중심에 ‘자기’가 서 있으며 그러

8) 자기(Self)란 ‘몸과 정신·마음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로서 근원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적인 혹은 상호 교류적인 경험을 이루어가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는 현재적이며 상호 교류적이고 현재적이다.

한 모든 경향과 행동의 주체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성장은 자기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성장이 없는 자기실현은 있을 수 없으며 자기성장은 자기실현 그 자체이거나 자기실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도표가 있다.⁹⁾



① 현실의 나를 정확히 파악·이해하고 ② 순수한 내가 아닌 타인이나 외부환경에 의존하거나 외부 조건에 따르는 나를 버리고 ③ 다른 사람·세계와 나는 유기적으로 상호관련이 있다는 관계성을 인식하고 ④ 그 관계성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상황과 문화적·사회적 맥락 안에서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동일화를 거쳐 ⑤ '자기'에 근거를 둔 발견과 발전을 계획하고 ⑥ 나의 잠재능력과 꿈과 끼를 발현하고 구현하는 자기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⑥ 자기실현은 생활 속에서 다시 일상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다시 ① 현실의 나를 파악·이해하고 ② 외부적인 요인에 지배당하는 나를 버리고 ③ 올바른 관계성을 인식하고 ④ 다른 사람과 동일화를 거쳐 ⑤ 다시 나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⑥ 자기실현을 이루는 삶의 형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9) 이 도표와 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기철의 『인성교육과 국어교육』(역락, 2001) 56-57면에 볼 수 있다.

①의 단계에서 ②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상위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자기성장이라 할 수 있고, ① 단계에서 ②·③·④·⑤의 단계를 거쳐 ⑥ 단계에 이르는 것을 자기성찰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성찰과 자기성장의 관계는, 자기성장이 없는 자기성찰이 없으며 자기성장은 자기성찰의 과정이자 자기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려면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닫는다는 것은 보통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라고 정의 된다. 이런 사전적 정의는 깨달음의 대상을 밖에만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깨달음의 대상은 바깥 세계는 물론 주체 내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깨달음’이란 ‘주체가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진리와 지혜를 터득하고 그 결과를 실천함으로써 의식이나 행동에서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⁰⁾

‘깨달음의 대상은 바깥 세계는 물론 주체 내면이기도 하다.’는 이강욱의 주장은, 깨달음은 항상 내면에서 오고 깨달음의 주체는 중국에는 자기라는 측면에서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혜안(慧眼)이다. 하지만 깨달음을 ‘의식이나 행동에서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현상’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깨달음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정의한 감이 있다. 물론 깨우침과 깨달음을 ‘깨우침 : 주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 ‘깨달음 : 주체의 근본적인 존재 전환을 이끌어 오는 심오한 경지’로 구분하였지만 깨우침과 깨달음은 객관적이거나 양적·수치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이고 질적인 것이므로 그 경계와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으므로 깨달음을 ‘근본적인 존재 전환을 이끌어 오는 심오한 경지’라고 한다면 깨달음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사람이, 또 일반적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추상적인 단어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세계로 유도하거나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그 어떤 행위도

10) 이강욱, 『문학교육과 비판·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 제2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8. 10면.

무의미해지고 만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깨달음은 ‘근본적인 존재 전환을 이끌어’ 오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혹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 지난날의 경험 중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문득 찾아오는 것이다. 이 때 ‘어떤 계기’란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이며 환경이다. 가령 책을 읽는다든지, 연극·영화를 관람한다든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예술품을 감상한다든지, 산에 오르거나 바다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등등 같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 등이 ‘어떤 계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깨달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도중, 혹은 행위 후에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나 사이, 관계와 나 사이를 되짚어 보는 현재의 자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어느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도 깨달음은 일어날 수 있다. 퇴근 버스 안에서 서쪽 하늘의 일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모처럼 떠난 여행지에서 혹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지켜보게 된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계기나 경험, 사건들을 통해 모두가 항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와 사건·환경 등 모든 것들을 나의 내면세계로 끌어들이는 자기내향성(Self-introversion)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기내향성이란 ‘삼라만상과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나의 내면세계로 끌어들이는 태도와 성향¹¹⁾’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기내향성을 지닌 사람만이 깨달음을 획득할 수 있다.

3. 『겨울왕국』과 자기성장

3.1. 『겨울왕국』 서사 분석

『겨울왕국』은 북극의 오로라가 영롱하게 빛나는 북극의 호수에서 얼음 채집꾼(원주민 사미족)들이 얼음을 채취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카메라는 얼

11) 정기철, 『자기표현 글쓰기 관점에서 본 『만인사』』, 『韓國言語文學』 第87輯, 韓國言語文學會, 2013. 12. 213면.

음 밑 물속에 있고 얼음 채집꾼들의 날카로운 톱날이 얼음을 뚫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¹²⁾ 얼음 채집꾼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려준다.

CUT THROUGH THE HEART, COLD AND CLEAR. / STRIKE FOR LOVE
AND STRIKE FOR FEAR. SEE THE BEAUTY SHARP AND SHEER. /
SPLIT THE ICE APART! / AND BREAK THE FROZEN HEART.¹³⁾

영화 시작과 함께 들려주는 얼음 채집꾼들의 노래는 관객들이 이 영화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얼음 채집꾼들의 노래는 그들이 찾으려하는 것이 얼어붙은 심장이며, 그들이 할 일이 얼어붙은 심장을 깨뜨리는 일임을 알려준다. 바꾸어 말하면, 『겨울왕국』에서 관객들이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 것은 ‘얼어붙은 심장을 깨뜨리는 일’이다.

그러면, 얼어붙은 심장을 깨뜨려서 자기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영화 『겨울왕국』을 따라 읽어 본다.¹⁴⁾

1. 인지와 감정이 분리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과 위기

- ① 엘사는 마법으로 눈을 만들어 눈사람(올라프)을 만들고 바닥을 열게 하여 미끄럼을 타며 논다.
- ② 얼음산을 타며 놀다가 안나가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엘사가 마법을 이용해 안나를 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안나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안나는 정신을 잃는다. (그 과정에서 둘이 만든 눈사람(올라프)이 부서지고 만다.)

#1은 엘사·안나 자매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여준다. 어린 엘사와 안나는 눈사람(올라프)을 만들고, 언 바닥에서 미끄럼을 타며 서로 갈등 없이 즐

12) We're underwater looking up at it. A saw cut through, heading right for us : 물속에 있는 카메라는 곧 관객들이 된다. 얼음 채집꾼들의 톱날이 얼음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관객들은 톱날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얼음 채집꾼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들이 곧 심장(HEART)임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얼음 채집꾼을 찾아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13) 노래가사는 대문자로 대화와 지문은 소문자로 인용 표기함

14) #은 장면 표시임. 본고에서 구분한 장면은 영화 기법상의 장면 구분이 아니라 『겨울왕국』을 자기성장의 관점에서 읽기 위해 구분한 장면임을 밝힌다.

거운 시절을 보낸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때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이 인지와 감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던 순수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지와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양상은 인지가 감정을 서서히 지배하는 것이다. 적어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지와 감정 중에서 인지가 감정보다 우위에 오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감정이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인지가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와 감정이 같이 눈사람을 만들던 일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만다.

2. 성장하면서 위협 받는 감정, 그리고 고립

- ① 아버지(왕)은 안나를 치료하기 위해 크롤을 찾아나선다.
- ② 파비 할아버지는 안나를 치료하며 엘사의 마법과 안나가 지니고 있던 마법에 대한 기억을 지운다. 하지만 재미난 기억은 살려둔다.
- ③ 파비 할아버지는 엘사의 마법이 더 강력해 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 ④ 엘사는 자기 방 안에 고립된다.

어린 시절의 인지와 감정의 갈등은 그나마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조금은 조절될 수 있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안나처럼, 상처 받기 쉬운 어린 감정은 어머니의 따뜻한 보호 아래 어느 정도 안식할 수 있으며, 불안전하기만 한 인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여러 문제 상황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어린 감정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아직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다.

You are lucky it wasn't her heart. The heart is not so easily changed, but the head can be persuaded.

안나가 심장을 다치지 않고 머리를 다쳤다는 것은, 그리고 심장은 쉽게 고칠 수 없지만 머리는 고칠 수 있다는 크롤(파비 할아버지)의 말처럼 어린 시절의 감정은 아직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지의 힘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이다. “Listen to me Elsa, your power Will only grow.” 라는 파비 할아버지의 말은 우리의 의지와 바람과는 달리 자라면 자랄수록

인지의 힘이 더 강력해진다.

인지에서 나오는 힘은 아름답지만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There is beauty in your magic. But also great danger.). 인지, 혹은 인지에서 생성되는 지식·정보 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과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기도 한다.¹⁵⁾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지와 감정이 일치하는 자기실현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파비 할아버지의 말(“Fear will be your enemy.”)처럼 “우리는 잘못된 규범·전통·문화가 만들어 놓은 ‘~ 해야만 해’라는 당위성을 신성한 전범(典範)처럼 여겨 우리 감정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거부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등과 같은 외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 마음이 가는 데로’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엘사가 자기 방에 스스로 고립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감정과 격리시키고 만다. 아버지의 바람(“No. We’ll protect her. She can learn to control it. I’m sure.”)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지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서 감정을 외면하여 내가 살고 싶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거나, 인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가끔 지나간 감정을 꺼내 들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3. 부모님의 부재 : 더 깊어지는 고립

- ① 배를 타고 떠난 부모는 파도에 휩쓸려 돌아가시고
- ② 안나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엘사는 더 깊은 고립에 빠진다.

#3은 소녀가 된 엘사와 엘사 부모의 죽음, 그리고 더 깊어지는 엘사의 고립을 보여주고 있다. 소녀가 된 엘사는 부모 품에 안기는 안나와 달리 부모와 접촉을 꺼리고 형식적인 인사를 한다. 부모와 거리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청소년기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엘사의 부모는 왜, 어디로 떠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배를 타고 길을 떠났

15) 인지가 낳은 문명과 과학과 IT기술 덕분에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양극화·환경오염·물개성화 등으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지구 종말이라는 위협을 받고 있다.

다가 폭풍에 휩싸여 죽음을 맞는다. 어쩌면 엘사의 부모가 왜, 어디로 떠나는 지에 대한 설명은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운명적으로 겪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지와 감정의 갈등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엘사에게 부모의 부재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사건이 되고 만다.

안나는 굳게 잠긴 엘사의 방문 앞에서 문을 열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

I'M TRYING TO / I'M RIGHT OUT HERE FOR YOU. / PLEASE LET ME IN. / WE ONLY HAVE EACH OTHER. / IT'S JUST YOU AND ME. / WHAT ARE WE GONNA DO? / (weak, internal)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안나의 바람- 인지와 감정이 만나 완전한 인격체가 되고 싶은 바람-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질풍노도의 폭과 깊이를 더할 뿐이다. 청소년기는, 특히 부모의 부재는 책임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직면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열리지 않는 엘사의 문 앞에서 절망하여 주저앉은 안나를 보여주면서 점점 어두워져 암전에 이르는 #3의 마지막 장면은 청소년기의 절망과 고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 성년의 날. 이제 문을 열어야 할 때

- ① 성년식과 대관식을 맞이하여 성문이 열린다
- ② 대공과 한스의 등장 - 위협 세력들의 등장
- ③ 증폭되는 엘사의 두려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몹시 설레는 일이다.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설렘, 멋진 사람을 만나 사랑할 수 있다는 설렘 등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일임이 분명하다.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 THERE'LL BE MAGIC, THERE'LL BE FUN. /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 I COULD

BE NOTICED BY SOMEONE. / AND I KNOW IT IS TOTALLY CRAZY
/ TO DREAM I'D FIND ROMANCE. / BUT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 AT LEAST I'VE GOT A CHANCE!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많은 변화와 직면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머리에 무거운 왕관을 써야 한다. 이 왕관은 어른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의 삶을 혼자 힘으로 결정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내 주변사람들을 책임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는 고립만을 고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면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혀야 한다. 그 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DUKE: Ah, Arendelle, our most mysterious trade partner. Open those gates so I may unlock your secrets and exploit your riches. (catching himself)
...Did I just say that out loud?

문을 열고 나오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들과도 교류(교역)해야 한다. 문을 열고 나오면 내 비밀이나 단점을 알아서 그것을 교묘히 자신의 이익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대놓고 재물을 나누어 달라는(빼앗아 가려는) 사람도 있다. 그 뿐이 아니다. 한스와 같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돕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다.¹⁶⁾

부모를 잃은 엘사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매우 힘에 부치는 일이다. 인지와 감정을 어느 정도 일치시킨 사람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극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인지와 감정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엘사는 오히려 퇴행(Regression)을 일으키기도 한다.

16) 한스는 소극적 반사회성 인물이다. 소극적 반사회성 인물이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적극적 반사회성 인물과는 달리 평소에는 우호적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타인이나 사회를 공격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ELSA: DON'T LET THEM IN. / DON'T LET THEM SEE. / BE THE GOOD GIRL / YOU ALWAYS HAVE TO BE. / CONCEAL. / DON'T FEEL. / PUT ON A SNOW. / MAKE ONE WRONG MOVE / AND EVERYONE WILL KNOW.

사람들을 문 안으로 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들키지 않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엘사는 안전한 아이(GOOD GIRL)로 돌아가려고 한다.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CONCEAL), 마음을 더욱 굳게 닫아 느끼지 않으려(DON'T FEEL) 한다. 이제 내 삶에서 주체적 삶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타자적 삶만 남게 되는 것이다.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고 타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성장을 어렵게 한다. 자기성장을 위해서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기 목소리(감정)에 충실하여 하며, 변화와 장애, 위협을 자기성장과 자기실현의 계기로 삼는 태도로 그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엘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극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다.

#5.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엘사와 전투

- ① 북쪽산으로 떠나 자신만의 얼음궁전을 짓고 그 속에 갇힌 엘사
- ② 크리스토프의 도움으로 엘사를 찾아 떠나는 안나
- ③ 엘사를 만나지만 심장을 다치는 안나
- ④ 대공의 부하들과 한스의 공격을 받아 지하 감옥에 갇힌 엘사
- ⑤ 한스에게 배신을 당하여 갇힌 안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킨 엘사는 아렌델 왕국(정상적인 삶)을 떠난다. 안나는 엘사가 아렌델 왕국을 떠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재판식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말을 타고 엘사를 찾아 떠난다.

ANNA: It was an accident. She was scared. She didn't mean it. She didn't mean and of this... Tonight was my fault. I pushed her. So, I'm the one that needs to go after her.

어른이 되어 외부의 사람들과 크고 작은 일을 당한 엘사는 자신의 모습을 들키게 되고, 결국 인지와 감정이 일치된 정상적인 삶(아렌델 왕국)을 포기한 채 만나까지 버리고 인지로만 살기로 하고 길을 떠난다. 이로써 자기성장과 자기실현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안나는 정상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엘사를 찾아 떠난다. 연약한 감정이 이미 자신만의 삶을 선언한 인지를 찾아 일치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다. 혹독한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기는 일은 연약한 감정에게는 큰 시련이다(안나는 대관식 때에 입었던 얇은 옷을 입었을 뿐이며, 타고 가던 말까지 잃어버리는 시련에 부딪힌다).

시련에 부딪힌 감정은 크리스토프를 만나 스벤과 함께 인지와 일치된 삶을 추구한다. 크리스토프는 영화 첫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얼음나라의 원주민(원초적 욕구를 지닌 자)이자 얼음 속에서 심장을 찾아내 얼어붙은 심장을 깨뜨리는 어린 얼음 채집꾼이었음을 상기한다면, 크리스토프가 이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게 해 줄 결정적인 도움자임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엘사는 자신만의 얼음궁전을 짓고 그 안에서 인지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당위성과 그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자위를 통해 인지로만 사는 삶을 더욱 견고하게 다진다.

ELSA: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 AND THE FEARS THAT ONCE CONTROLLED ME / CAN'T GET TO ME AT ALL. / IT'S TIME TO SEE / WHAT I CAN DO, /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 NO RIGHT, NO WRONG, / NO RULES FOR ME... I'M FREE!

엘사는 세상을 향해 'LET IT GO'¹⁷⁾를 외치면서 점점 자신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쌓는다. 여기에서 'LET IT GO'는 자지 자신에 대한 명령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포이기도 한다. 결국 엘사는 세상을 향해 인지로만 살 것이라는 자신의 견고한 의지를 선포하고 감정과 일치했던 행복한 어린 시절

17) 'LET IT GO'는 '(나를) 가만둬'·'(나를) 놓아줘'의 뜻으로 쓰인다. 'LET IT GO'는 청유의 상황에서 쓰기도 하지만 명령의 뜻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개가 자신을 귀찮게 할 때 개를 향해 'LET IT GO'라고 한다.

마저 부정한다.

ELSA: THAT PERFECT GIRL IS GONE. / HERE I STAND IN THE
LIGHT OF DAY. / LET THE STORM RAGE ON!! /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엘사는 과거는 과거일 뿐(I'M NEVER GOING BACK, / (back to resolve)
THE PAST IS IN THE PAST!)이라며 얼음 궁전의 문을 거세게 닫아 버리
지만, 삶이란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치된 삶을 살고 싶은 감정
과도 갈등을 겪어야 하지만 자신을 미워하고 위협하는 한스와 대공의 부하들
과도 전투를 벌여야만 한다.

감정이야 애써 무시하면 되지만(이 과정에서 안나는 심장을 다친다. 심장은
쉽게 고칠 수 없다) 자신을 미워하고 위협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살지 않을
방도가 없다. 엘사는 결국 그들에게 붙잡혀 아렌델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만
다. 인지로만으로는 외부 사람들과 대적(교류)할 수 없었던 엘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한다.

위기는 안나에게도 찾아온다. 진정한 사랑이 담긴 행동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파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리스토프와 스벤의 도움을 받아 아
렌델 왕국으로 돌아와 한스를 만난다. 하지만 한스는 그런 안나를 비웃으며
안나를 방에 가두고 사람들에게 안나가 엘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알린다.

한스는 안나를 죽인 엘사를 처단해 한다면 나신다. 엘사와 안나 모두가 위
기를 맞는다. 인지와 감정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엘사와 안나는 외부 사람들
에 의해 죽임을 당할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 것이다. 인지로만 사는 삶, 감정
으로만 사는 삶 모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다.

#6.인지와 감정의 일치 - 진정한 사랑만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인다

- ① 엘사와 안나가 탈출한다.
- ② 한스가 엘사를 칼로 내리치는데 안나가 몸으로 막는다
- ③ 얼어붙은(죽은) 안나를 끌어 안고 통곡하는 엘사. 엘사의 뜨거운 눈물이
안나의 몸에 닿자 안나가 살아난다.
- ④ 평온을 되찾은 아렌델 왕국에는 사랑이 넘친다.

엘사는 자신을 죽이러 온 대공의 부하들에게서 도망 나와 다시 자신만의 얼음왕국으로 돌아가려 하고, 안나는 올라프가 말한 진정한 사랑인 크리스토프를 만나기 위해 갇혀 있던 방에서 탈출한다. 엘사의 뒤를 쫓는 한스, 크리스토프를 만나려는 안나 모두 한 곳에서 만난다. 한스는 칼로 엘사를 죽이려 한다. 안나는 멀리서 오는 크리스토프에게 가려다가 위협에 처한 엘사를 보고 몸을 던져 한스의 칼을 맞는다. 엘사는 죽은 안나를 끌어 안고 통곡을 하고, 엘사의 뜨거운 눈물이 안나의 몸에 닿자 안나는 살아난다.

ELSA: ...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ANNA: (weak) ...I love you

OLAF: An act of true love will thaw a frozen heart.

엘사와 안나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는 동시에 인지와 감정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 깨닫게 되면, 인지와 감정이 일치 되면, 주변의 것들을 열고 미는 단점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엘사는 주변의 것을 열리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는 그 단점을 잘 조절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능력으로 바꾸어 놓는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단점은 쉽게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통해 인지와 감정의 일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단점을 감추고 부정하려 하기 보다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꾸로 말하면 인지와 감정이 일치된 사람만이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인지와 감정이 일치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엘사와 안나도 다시는 문을 닫지 않을 것임을 말한다.

ANNA: I like the open gates.

ELSA: We are never closing them again.

자기성장을 위해서는 문을 닫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단점까지도 감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자기개방(Self-disclosure)이 필요하다. 엘사처럼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 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산다면 영원히 자기성장과 자기실현을 이룰 기회가 오지 않는다.

『겨울왕국』은 마지막 장면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OLAF: That's it. Glide and pivot and glide and pivot.

영화 『겨울왕국』이 스케이트를 못타 허둥거리는 안나를 엘사·올라프·크리스토프·스벤이 도우면서 모두 즐거워하는 장면을 마지막 장면으로 편집한 것은, 해피 엔딩의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등장인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교류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혼자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리고 인지만으로 살 수도 없고 감정만으로도 살 수 없다. 문을 활짝 열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겨울왕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고 그래야만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고 자기실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겨울왕국』이다.

3.2. 진정한 사랑과 자기성장

『겨울왕국』의 또 다른 주제는 진정한 사랑이다. 『겨울왕국』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과 자기성장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자기성장과 진정한 사랑은 한 몸이라 할 수도 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동력이다.

『겨울왕국』은 두 가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하나는 목숨과 바꾼 엘사와 안나 자매간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안나와 한스, 안나와 크리스토프의 이성간의 사랑이다. 엘사와 안나 자매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3.1에서 이야기 했으므로 안나와 한스, 안나와 크리스토프의 이성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안나는 성인이 되면서 설렘이 가득하다. 안나가 설레는 이유 중 하나가 멋진 남자를 만나고, 멋진 남자와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안나 앞에 한스가 나타난다.

ANNA: I'VE NEVER MET SOMEONE...

BOTH: WHO THINKS SO MUCH LIKE ME.

두 사람은 엘사의 대관식에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서로 샌드위치를 바꿔서 다 먹어치우자는 생각이 똑같으니 천생연분이라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사랑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Lief can be so much more)”이라며 결혼을 다짐한다. 그러나 둘의 결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인정한 것¹⁸⁾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엘사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자 안나는 자기가 언니보다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안다며 결혼을 고집한다. 그러나 안나는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ANNA: Well, we haven't worked out all the details ourselves. We'll need a few days to plan the ceremony. Of course we'll have soup, roast, and ice cream and the... Wait. Would we live here?

결혼은 사랑하는 일과는 조금 다르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살 집도 필요하고 누구와 살 것인가도 고려해야 하고 가재도구며 가구들도 필요하다. 특히, 자신만의 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던 엘사에게는 한스의 열 두 명이나 되는 형들과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인지와 감정이 어느 정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성장을 어느 정도

18) 두 사람은 둘의 결혼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점은 청혼하는 둘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ANS: Can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ANNA: Can I just say something enen crazier? Yes.

이런 어른이 아니면 결혼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엘사는 외친다. “아무도 결혼할 수 없어.(No one is getting married)”

안나는 멋진 남자와 만나고 결혼하는 꿈을 꾸다. 한스는 안나의 꿈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한스는 이웃 왕국의 멋진 왕자이다. 안나는 그런 한스에게 첫 눈에 반하고 결혼을 결심한다. 한스와 자신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스는 안나를 배신하고 아렌델 왕국을 차지할 야망을 드러낸다.

『겨울왕국』은 이제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보여준 ‘멋진 왕자와 공주의 결혼’ 공식을 깨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부터 고민하도록 한다.

TROLLS: (CHORUS) SO HE'S A BIT OF A FIXER UPPER, / SO HE'S GOT A FEW FLAWS, / HE PECULIAR BRAIN, DEAR. / HIS THING FOR THE REINDEER / THAT OUTSIDE A FEW OF NATURE'S LAWS. / SO HE'S A BIT OF FIXER UPPER, / BUT THIS WE'RE CERTAIN OF, / YOU CAN FIX THIS FIXER UPPER UP WITH A LITTLE BIT OF LOVE.

사랑의 중재자인 트롤들은 안나에게 크리스토프의 인간 됄됨이를 장황하게 묘사한다. 인간이란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진정한 사랑은 백마 탄 왕자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결점이 많은 남자와 하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 그 결점들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트롤들이 말하는 크리스토프의 장점은 ‘자상함과 상냥함(sensitive and sweet)’이라고 말한다. 자상함과 상냥함은 자기개방의 필수 요소인 유연성을 기초로 한다. 결국 자상하고 상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개방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튼, 트롤들이 말하는 자상함과 상냥함이 인간의 모든 조건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갖춘 외적인 조건들을 살피느라 내적인 태도인 자상함과 상냥함을 살피지 못한다. 우리가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가진 결점을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TROLLS: EVERYONE'S A BIT OF A FIXER UPPER, / BUT WHEN
PUSH COMES TO SHOVE, / THE ONLY FIXER UPPER FIXER THAT
CAN FIX A FIXER UPPER IS / TRUE / TRUE / TRUE / TRUE / LOVE

모든 사람은 약간의 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점은 진정한 사랑으로 고칠 수 있다. 『겨울왕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진정한 사랑으로 서로의 결점을 고칠 수 있을까?’와 같은 두려움을 떨치고 진정한 사랑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겨울왕국』은 사랑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올라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OLAF: Love is... putting someone else's needs before yours, like, you know, how Kristoff brought you back here to Hans and left you forever.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의 욕구보다는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챙기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한스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안나를 한스에게(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데려다 주고 떠나버린 크리스토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안나는 자신을 배신한 한스에게 “여기에서 심장이 얼어붙은 사람은 당신 밖에 없어요(The only frozen heart around here is you)”라고 외친다. 심장이 얼어붙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구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4. 결론

『겨울왕국』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 어린이 영화’의 등식을 깨고 어른들도 같이 즐기는 영화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관객 천만 명 돌파는 이 영화를 많은 어른들이 관람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사람들마다 나름의 방식과 수준으로 『겨울왕국』을 감상하겠지만, 『겨울왕국』을 통해 자기성장의 과정과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영화 역시 문학과 같은 서사물이어서 작품서사와 자기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작품서사에 자기서사를 대입하거나 환치하면서 깊은 감동을 이끌어내고, 또 이끌어낼 수 있어야 좋은 영화다.

『겨울왕국』은 엘사와 안나, 즉 인지와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갈등은 인지와 감정의 일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지와 감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성장을 통해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함으로써 자기성장을 이룰 수도 있다.

『겨울왕국』을 자기성장의 관점에서 읽는다면,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나’이다. 엘사는 냉정하고 날카로운 나의 인지이고, 안나는 즉흥적이지만 순수한 나의 감정이다. 크리스토프는 결점은 많지만 사랑스러운 나이고 한스는 외부 조건에 자주 흔들리는 나이다. 그리고 눈사람 올라프는 어린 시절 나의 추억이다.

우리는 『겨울왕국』을 통해 지난날의 ‘나’를 불러내어 추억에 젖을 수도 있고 회환에 젖을 수도 있을 것이며, 엘사와 안나의 갈등과 화해를 보면서 내가 겪었던 자매·형제들과의 화해를 꿈 꿀 수도 있다. 아니면, 결혼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고민했거나 한스 같은 남자보다는 크리스토프와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화 『겨울왕국』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나를 보았고 미래의 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힘들고, 인지와 감정 사이의 조절도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 역시 모두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인간은 모두 결점 투성이라는 진실에 다시 한번 안심하면서 그러한 결점들을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다짐도 했을 것이다.

『겨울왕국』은 자기성장을 경험하게하고 자기실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 이강옥, 『문학교육과 비판·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 제29호, 한국문학
교육학회, 2009.
-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2002.
-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001.
- _____, 『자기표현 글쓰기 관점에서 본 『만언사』』, 『韓國言語文學』 第87輯,
韓國言語文學會. 2013.
- 아브라함 H. 매슬로, 오현경 역, 『동기와 성격』, 21세기북스, 2009.
- 아브라함 H. 매슬로, 정태연·노현정 역, 『존재의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5.
- Ken Wilber, 조옥경 역,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학지사, 2003.

【국문초록】

『겨울왕국』이 관객 천만 명을 돌파하고 새로운 문화를 생산해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왕국』의 흥행 요인을,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의 결합’, ‘화려하고 환상적인 화면’, ‘캐릭터’, ‘언니와 동생의 사랑(가족애)’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영화 『겨울왕국』을 성공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요인들만으로는 『겨울왕국』의 성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영화 역사 서사물이어서 작품서사와 자기서사가 단단하게 결속되지 않으면 많은 관객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겨울왕국』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겨울왕국』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 어린이 영화’라는 공식을 깨고 어른들도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것이다.

『겨울왕국』을 자기성장 영화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겨울왕국』이 짧은 시간동안 어린 시절부터 성인까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겨울왕국』에 자주 등장하는 ‘Head’와 ‘Heart’는 인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인지와 감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왕국』은 자기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이며, 동시에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겨울왕국』을 자기성장의 관점에서 읽는다면,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나’이다. 엘사는 나의 인지이고, 안나는 나의 감정이다. 크리스토프는 결점이 많지만 사랑스런 ‘나’이고, 한스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는 ‘나’이다. 그리고 눈사람 올라프는 어린 시절 ‘나’의 추억이다.

우리는 『겨울왕국』을 통해 자기성장을 확인하고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의 결점을 보완하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는 진리도 발견하게 된다.

주제어 : 자기성장, 자기실현, 자기개방, 자기성찰, 자기수용, 자기내향성, 현실태, 가능태, 진정한 사랑, 완전성, 원만성, 자상함과 상냥함.

On 『Frozen』 from the Literary View of Self-growth

Chung, Ki-cheol

It is estimated that over ten million people have watched the movie, 『Frozen』. Many of experts found out that reasons of the success are a great combination of animation and music, a gorgeousness screen, and a love between sisters.

However, the main cause of the success is because 『Frozen』 broke the general trend of Disney animation, which is Disney animations are created for kids, not adults. 『Frozen』 not only shows how to think outside of the box but also attracts adult audiences to be fascinated with it.

The first reason why we could call 『Frozen』 as a Self-growth movie is because it contains a life from childhood to adulthood in a brief space of time. Secondly, the words 'Head' and 'Heart' are mentioned frequently in 『Frozen』. Those words symbolize the recognition and emotion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of human nature. Therefore, 『Frozen』 is the movie that shows a process of Self-growth and a possibility of Self-Realization at the same time.

If we watch 『Frozen』 from the Self-growth view, all of main characters in the movie could be represented as 'I'. Elsa shows my 'Self-Recognition' and Anna describes my 'Self-Emotion'. Kristoff illustrates many of my faults but also lovable me, Hans is one of me that cracked up by external

factors. Moreover, a snowman Olaf symbolizes precious memory of my childhood.

At the final scene of 『Frozen』, it teaches that there are many flaws in human being, but the true love could turn that flaws to the strength.

Key words : Self-growth, Self-Realization, Self-disclosure, Self-reflection, Self-acceptation, Self-introversion, Enegeia, Potentiality, True love, Vollkommenheit, Vollständigkeit, Sensitive and Sweet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8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8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